



이즈프로브 '유아용 스마트 체온계'

# “아기 체온변화 한눈에”... 스마트폰 연동 체온계

체온계는 필수 유아용품이다. 많은 부모가 아이의 체온을 수시로 측정한다. 고열은 아이 몸의 이상 신호이기 때문이다. 아이가 열이 나면 더 자주 체온을 재야 한다. 하지만 한 번 측정한 체온은 그것으로 '끝'이다. 열이 내렸는지 변화를 알기 위해선 종이에 그간의 체온을 따로 기록해야 해 번거롭다.

아이를 키우는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은 신광일 이즈프로브 사장(30)은 이런 체온 측정 방식이 1회적이라는 점에 착안했다. 측정할 체온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스마트폰 앱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1년간의 개발을 거쳐 선보인 이즈프로브의 '유아용 스마트 체온계'는 국내 최초로 스마트폰을 활용해 체온 관리가 가능하다.

◆스마트폰에 꽃아 사용·충전 원리는 단순하다. 체온계와 스마트폰을 융합했다. 체온계 본체에 달린 선을 스마트폰 하단의 단자에 꽂으면 제품 전원이 켜진 뒤 스마트폰 화면에 앱 화면이 뜬다. 아이의 귀에 넣어 체온을 재는 '고막 측정' 방식이다. 앱 화면에서 체온이 표시돼 체온계에 액정 표시창이 따로 없다. 스마트폰으로 충전

하기 때문에 건전지가 필요 없다. 그래서 제품이 작고 가볍다.

체온계를 쓰기 위해서는 '블케 어'라는 무료 앱을 다운받아야 한다. 이 앱엔 그동안 측정한 체온의 기록이 남는다. 일별, 월별 등 주기별 그래프로 나타난다. 체온 관리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현재는 안드로이드용 휴대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고막 측정’ 방식 일·월별 변화 그래프 표시 ‘육아 커뮤니티’ 구축**

**이달 중 온라인몰서 판매**

◆이달 판매 - 앱 다양하게 활용 이달 중 온라인몰과 일부 의료기기 매장에서 판매를 시작한다. 가격은 4만8000원이다. 신 사장은 “대부분 가정에서 전자식 체온계를 쓰고 있는데 이 제품은 젊은 부모 등 틈새 시장을 노렸다”고 밝혔다.

이즈프로브는 블케어 앱을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체온을 잴 때마다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문자를 전송할 수 있고

록 개발하고 있다. 아이를 어린이 집에 맡긴 워킹맘을 위한 기능이다. 제품의 사용자가 많아지면 측정된 체온을 지역, 연령 등으로 나눠 관리해 전염병 예방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그는 “체온은 여러 분야와 접목할 수 있는 일종의 빅데이터”라며 “앱에서 육아일기를 작성하는 등 콘텐츠를 보강해 앱을 육아 커뮤니티로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 해외시장 진출 삼성 LG 등에 디스플레이를 납품하는 정관디스플레이에 10여년간 다니던 신 사장은 지난해 5월 이즈프로브를 설립했다. 이즈프로브는 “측정한다”는 뜻이다. 그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사관학교에서 창업에 대한 다양한 것을 배웠다”며 “부산 가톨릭대 내 창업보육센터에 사무실을 얻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율초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승인을 받는 등 차근차근 준비해 왔다.

신 사장은 “내년부터 동남아 등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김정은기자 likesmile@hankyung.com



신광일 이즈프로브 사장이 스마트 체온계를 시연하고 있다. 김정은 기자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art@hankyung.com)로 응모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레고마의 뷰티레고체형기 (053)566-6859 △이즈프로브의 유아용 스마트 체온계 (051)582-1088 △제이오컴퍼니의 KW-7000 힐링 이지유 (02)706-5889 △착한음식의 야외에서 불 없이 먹는 즉석밥 (063)214-2447

## “숨은 1인치를 찾아라” 작은 불편도 없애는 가구업체

직장인 A씨는 잠자기 전 침대에 누워 책을 즐겨 본다. 하지만 잠이 들려고 하다가 깨고만다. 불을 끄러 침대에서 일어나 이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A씨는 ‘손만 뻗어 불을 끌 수 있으면 좋을 텐데’라고 종종 생각했다.



A씨와 같은 고객들을 위해 에몬스는 지난해 7월 ‘내추럴젠’을 선보였다. 침대 헤드(머리 부분)에 LED(발광다이오드) 조명이 내장된 제품이다. 침대 조명만 켜 책 읽을 때 손을 뻗어 끄면 된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입소문이 나며 에몬스의 판매 1위 침대가 됐다. 에몬스는 “고객들이 느끼

**LED 조명 내장된 침대 이동식 거울 넣은 장롱**

는 불편함을 최대한 없애주는 LED 조명 침대를 개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편의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침대 헤드에 USB를 연결해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품도 하반기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가구업체들이 고객의 잠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가구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고객이 일상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을 파악, 이를 개선해 주는 제품들이다. 최근 차별화된 가구를 원하는 고객이 늘어나면서 ‘숨은 1인치’를 찾기 위한 가구업체들의 경쟁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까사미아는 지난 5월 장롱

안에 이동식 거울을 넣은 ‘스마트’를 선보였다. 옷을 꺼내 입은 뒤 화장대로 이동하지 않고도 거울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히 여성들에게서 반응이 좋다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침대 머리맡에 책, 안경, 휴대폰 등을 복잡하게 놔두는 이들을 위해 침대 헤드에 수납 공간을 만든 ‘리딩’ 침대도 내놨다. 이 제품의 침대 헤드엔 9cm 깊이에 달하는 수납장이 있다. 까사미아는 “침대에서 독서를 하다 졸리면 일어나거나 머리맡에 복잡하게 두지 않아도 책과 안경 등을 수납장에 넣고 자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샘은 부엌가구 대리석 상판에 ‘터치 콘센트’를 매입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대부분 가정의 주방에서 소형가전을 사용할 때 멀티콘센트를 쓴다. 하지만 물이 튀면 감전의 위험이 높고 사용하기도 불편하다. 한샘은 “터치 콘센트는 평소엔 상판 안에 내장돼 있다가 이를 손으로 누르면 상판 위로 올라온다”며 “안전하고 편리해 매달 평균 400여개 이상 판매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경기자 hkkim@hankyung.com

## LG하우시스, 제습 벽장재 시장 공략

‘숨타일’ 리뉴얼 제품 출시

LG하우시스가 습도를 조절하는 제습 벽장재시장을 집중 공략하고 나섰다. 벽장재는 건물 내부 벽을 마감하는 벽지와 타일 등을 말한다. 국내 기후가 아열대성으로 변화하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LG하우시스는 이달 초부터 제습 기능을 갖춘 ‘숨타일’ 리뉴얼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2011년 처음 출시한 숨타일의 기능과 디자인을 보다 개선한 것이다.

이 제품은 내부에 균일하게 분산된 4-5mm의 미세기공을 통해 습도가 높을 때는 흡습을, 낮을 때는 방습을 한다. 숨타일 1㎡에 포함된 미세기공을 펼쳐면 표면적



제습 벽장재를 시공한 내부 모습.

이 38만5000㎡에 이른다. 비 오는 날과 같이 90%에 달하는 높은 습도에선 제습 효과가 20%에 달한다. 기존 제품에 없는 대형 사이즈(300×600mm)와 벽돌 사이즈(100×300mm)를 추가했다.

LG하우시스는 “2011년 출시했을 때보다 매출이 60%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경기자 hkkim@hankyung.com

## “中企 미래 먹거리 찾는다” 한경향해포럼 출범

한양대·한경 공동 주최 23일 안산시 창립 포럼

반월 시화 화성 평택 아산지역 중견·중소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한경향해포럼’이 오는 23일 출범한다.

한양대(에리카캠퍼스)와 한국경제신문은 이 지역 중견·중소기업들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한경향해포럼’을 출범 시키기로 했다. 매월 조건 강연과 토론을 통해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모임이다. 특히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글로벌 시장 동향에 대한 특강과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한양대 에리카캠퍼스는 교육파트너, 한



경은 미디어 파트너 역할을 한다. 창립 포럼은 오는 23일 오전 7시 경기 안산시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에서 조찬 형식으로 열기로 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첫 연사로 나서 ‘중견·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강연하고 기업인들과 질의·응답시간을 갖는다.

한경향해포럼 초대 회장을 맡게 된 플랜트업체 함창의 함정대 회장(사진)은 “안산에 인접한 반월 시화 화성 평택 아산은 3단계가 넘는 중견·중소기업이 입주해 있는 기업 밀집 지역”이라며 “이

들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차세대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포럼을 구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함 회장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서 황해는 동북아의 경제중심지로 발돋움하게 됐다”며 “연말까지 최소 500여명이 참여하는 경영자 포럼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포럼에는 고급 피혁을 생산해 세계적인 명품업체에 공급하는 해성아이디의 양영대 대표, 황동제조업체인 대창의 조시영 대표 등이 지역 중견기업인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경향해포럼은 지역의 리더들이면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다. 김낙훈중소기업전문기자 nhk@hankyung.com

## 에넥스, 온라인 전용 가구 2종 판매

에넥스가 온라인 전용제품으로 무선충전이 가능한 ‘울인원 스마트 책상세트’와 반려동물용 위한 애견전용 가구 ‘펫토리’를 출시했다. 울인원 스마트 책상세트는 대다수 사람이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고 많은 시간을 책상에 서 보내는 것을 고려해 개발한 제품이다.

에넥스는 “다양한 충전기와 전선 등으로 불편을 겪는 경우가 중

종 있다”며 “휴대폰을 비롯한 스마트 기기 충전이 가능한 무선충전 패드를 장착, 스마트 기기 전용 공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펫토리’는 짐차 커지고 있는 애견시장을 공략해 업계 최초로 출시한 애견전용 가구다. 아기자기한 디자인으로 애견 하우스부터 옷장, 선반장 등 전용 수납장을 구성해 애견용품을 별도로 관리, 보관할 수 있다.

공모전·대외활동의 모든 것 올콘 www.all-con.co.kr

제 9 회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박사를 찾습니다!  
**9th Economy Quiz Battle**

대회일정

온라인 예선 : 2015년 6월 16일(09:00) - 2015년 7월 23일(18:00)

최종 결선 : 2015년 8월 6일(장소 추후공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quiz.all-con.co.kr)를 참조하세요.

한국경제신문

산업통상자원부

KYOBO 교보생명



정통리빙 #미래생활주

WORLD GYM